

“온라인 가짜뉴스 바로잡고 오월 진실 지키다”

청년인소 오월메이트 김수인 씨

청년 해설사로 5·18 왜곡된 게시물 등 현황 제보 ‘오월의 친구’ 처럼 열정적인 활동으로 성장 기대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월메이트 1기로 활동했던 30대 청년 김수인이라고 합니다. 오월메이트는 2025년부터 5·18기념제단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저 또한, 오월메이트 1기로 활동하며, 5·18 왜곡에 대한 제보를 하는 등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오월메이트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오월메이트(MAY action for truth)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에 맞서 진실을 알리고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서포터즈입니다. 발음이 메이트(mate)와 같아서 오월의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즌 1 때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각자가 정한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안내자가 회차마다 미션을 공개하면, 오월메이트는 각자 미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유했습니다. 5·18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온라인에서 5·18 왜곡을 찾고, 제보 및 삭제 요청, 신고하거나, 공공도서관 내 왜곡 도서 보유 현황을 확인하면서 제보하는 활동을 했습

니다. 시즌 2는 오월메이트 광주 캠프였습니다. 그동안은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 오프라인에서 만나니 어색하면서도 동료애가 훨씬 느껴졌습니다. 캠프를 통해 사적지를 걸으면서 5·18을 배우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소그룹 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왜곡 대응과 왜곡을 막을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짜뉴스 신고부터 추천 도서 공유까지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평소 5·18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 5·18과 광주에 대한 지역 혐오와 왜곡성 게시물, 댓글이 많았습니다. 특히, 체험상 작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2·3 내란 이후에 왜곡의 양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도 5·18 왜곡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혹여 5·18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면 믿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왜곡 게시글을 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반박으로 돌아올까 봐 그게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곡 게시물 신고에 대한 고민이 들 때, 마침 오월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힘들었겠지만, 함께했던 오월메이트 1기분들이 있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5·18 왜곡 도서를 찾는 활동입니다. 평소 책을 좋아해 근처 도서관을 자주 가지만, 왜곡 도서가 버젓이 비치된 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비교적 균형 있는 도서와 공신력 있는 도서들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곡 도서들이 전국 각지의 도서관 곳곳에 분포돼 있었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도서관에도 비치돼 있었습니다. 자칫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키울까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책은 기관의 자산이다 보니까 해당 시설의 협조가 없는 한 왜곡 도서를 담당 치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18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

고, ‘오월메이트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들어서 SNS에 공유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5·18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광주·전남이 통합되는 시점에서 광주와 전남의 청년 정책이 서로 보완돼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주에 살고 싶지만, 일자리·교육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살고 싶은 정착형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식 출범할 때, 광주·전남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청년 공청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지역 청년 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번째,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보급되고 있는 생성형 AI가 편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생성형 AI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파악하면

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선 떨렸지만 함께라서 해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오월 잇다’에서 오월 청년 해설사 양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낯선 타 지역 사람들이나 학생들에게 올바른 5·18을 알려주고 싶어서 열심히 교육받고 있습니다. 현재 5·18 민주묘지와 구묘역에 대해서 해설 시연을 연습하고 있으며, নিজ은 옛 전남도청에서 관람객들에게 해설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작년에 오월메이트 1기 활동을 하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올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2기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2기에서는 작년보다 더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 한층 성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드라마 ‘미지의 서술’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지금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는 이미 후회해도 지나갔고,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아직 우리는 미미한 빛을 내는 존재이지만, 언젠가 우리는 빛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신승기 광주청년센터 교류협력팀



오월메이트 소모임 활동 모습.



오월메이트 활동 모습.



오월메이트 활동 아카이브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